음식료

Sector Issue Brief 2026. 03. 13

가공식품 가격 인하 관련 Comment

Check Point

- 3/12, 주요 식품 업체 가공식품 가격 인하
- 가격 인하에 따른 수익성 영향은 제한적
- 고유가에 따른 비용 부담은 리스크 요인

| Analyst **박성호** | shpark@ls-sec.co.kr

3/12, 주요 식품 업체 일제히 제품 가격 인하 결정

3/12, 주요 식품 업체들이 일제히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 라면 4사(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가 일부 제품 가격을 4.0~14.9% 인하했으며, 제과 및 식용유 등 일부 가공식품 업체들도 가격 조정을 결정함. 이번 대대적인 가격 인하는 앞서 제빵 프랜차이즈의 빵값 인하와 밀가루, 전분당 가격 조정 이후 확산된 것으로,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과 더불어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이는 과거 2023년에 이어 정부의 강한 물가 안정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향후에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정책 개입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며 음식료 업종 전반의 단기적인 투자 심리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

전사 수익성 영향은 제한적.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압박은 리스크 요인

다만 이번 조치의 경우 대부분 핵심 브랜드를 제외된 일부 제품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2023년에도 라면 제품 가격 인하 이후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 관찰되었으나 이후 실적 방어 및 해외 성과를 확인 한 후 주가는 빠르게 회복된 바 있음. 또한 최근 국내 식품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가격 인하 영향 역시 해외 ASP 상승 및 가격 전가를 통해 상당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다만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유가 상승은 비용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밀을 중심으로 주요 농산물 투입 원가 상승이 우려됨. 또한 알루미늄 포장재의 경우 미국의 상호 관세 영향으로 이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 부담 확대 리스크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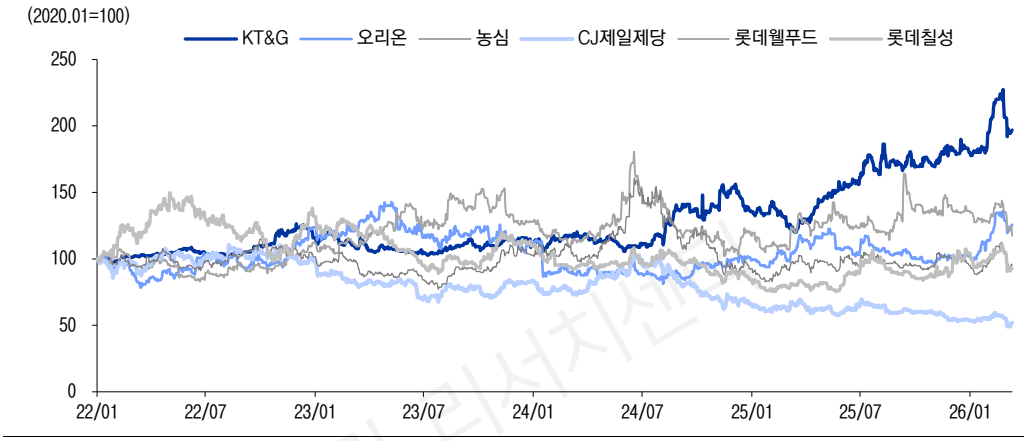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1) 매크로 이슈와 관련 없이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 2) 해외에서의 가격 전가력이 높은 KT&G 선호

표1 **주요 기업 제품 출고 가격 인하 내역**

기업	주요 제품	평균 인하율	기업	주요 제품	평균 인하율
해태제과	계란과자 베베핀 롤리폴리 롤리폴리 대용량 제품	5.3% 5.6% 4.0%	CJ 제일제당	백설 포도씨유 등 식용유 소비자용 밀가루	6.0% 5.0%
농심	안성탕면, 무파마 등 라면 12종 쫄병스낵 등 스낵 4종	7%	사조대림	식용유 제품 6종	3,0%
삼양식품	삼양라면 오리지널 2종	14.6%	동원 F&B	식용유 일부 제품	5.0%
팔도	팔도비빔면, 왕뚜껑 등 라면 19종	4.8%	대상	청정원 식용유 3종	3.0~5.2%
오뚜기	진짬뽕, 진짜장 등 라면 8종 올리브유 등 식용유 4종	6.3% 6.0%	롯데웰푸드	식용유 일부 제품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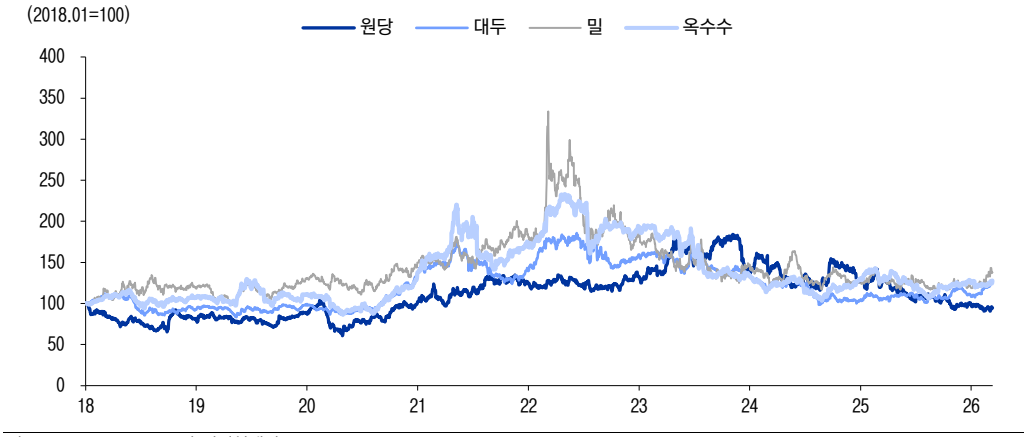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주요 기업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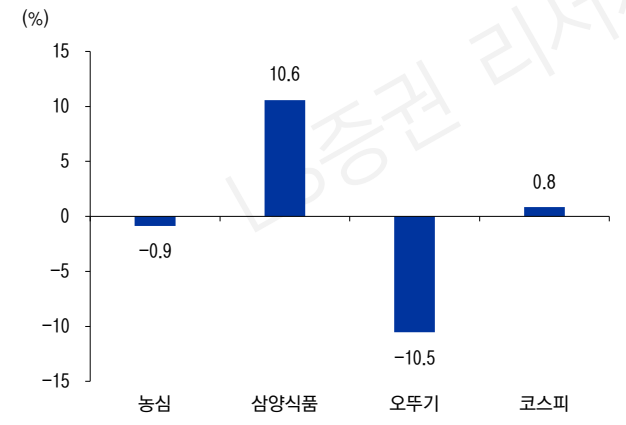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주요 농산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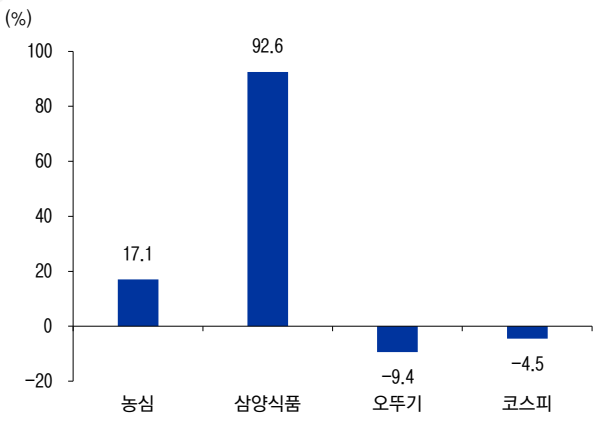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2023 년 가격 인하 이후 라면 기업 1 개월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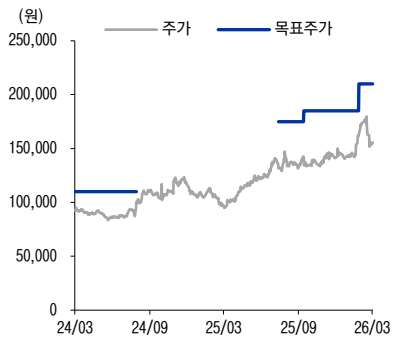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2023 년 가격 인하 이후 라면 기업 3 개월 주가 수익률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KT&G 목표주가 추이



투자의견 변동내역

일시	투자의견	목표가격	괴리율(%) 최고대비	괴리율(%) 최저대비	괴리율(%) 평균대비
2025.07.24	신규	박성호			
2025.07.24	Buy	175,000	-15.9		-22.3
2025.09.24	Buy	185,000	-12.5		-23.3
2026.02.06	Buy	210,000			

일시	투자의견	목표가격	괴리율(%) 최고대비	괴리율(%) 최저대비	괴리율(%) 평균대비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성호).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15% 이상 기대	88.7 %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Hold (보유)	-15% ~ +15% 기대	11.3 %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1. 1 ~ 2025. 12.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